

이키코쿠 박물관

이키코쿠 박물관은 기원전 200 년경부터 7 세기경까지 이키와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었던 교류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노쓰지를 수도로 하는 왕국 시대부터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거점이 되었던 시대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건물은 고대 마을 ‘하루노쓰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로카와 기쇼(1934~2007)가 설계한 이 박물관은 하루노쓰지 유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으며, 옥상 테라스와 전망 타워에서 유적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설전은 3 세기의 중국 역사서 『삼국지』의 일부인 「위지왜인전」에 초점을 맞춘 몰입형 전시로 시작됩니다. 이 「위지왜인전」에는 중국 사신의 일본 열도 여행기라는 형태로 이키에 관한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서장에 이어서 영상을 통해 고대의 이키와 하루노쓰지의 생활상에 대해 알아보고, 상영 후에는 시어터 룸에서 마을 터를 볼 수 있습니다.

시어터 룸에서 나와 하루노쓰지 유적과 이키 고분의 출토품을 중심으로 전시한 회랑을 지나면 메인 전시실로 이어집니다. 복도에 전시된 대부분의 전시품은 실제로 손으로 만져볼 수 있으며, 아이들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낮은 선반에 놓여 있습니다.

전시의 중심은 현재 이키 주민의 얼굴을 본떠 만든 인물을 배치한 하루노쓰지 생활 디오라마입니다. 어패류 채집과 수혈식 주거 건설, 왕궁에서 행해지는 의식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도를 막기 위해 양쪽에 판자를 수직으로 설치한 준구조선(準構造船)이라고 불리는 배의 모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키의 상인들은 이러한 형태의 배를 타고 한반도와 규슈로 건너가 해산물과 농작물을 도구와 도자기, 무기 등으로 교환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1 년에 4~5 차례의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장고의 일부는 큰 창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박물관 직원이 유물을 세척하고 복원하는 홀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현의 고고학 연구 거점인 나가사키현 매장문화재센터가 같은 건물에 병설되어 있습니다.